

“正易思想의 根本問題와 先後天變化原理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평〈一夫 金恒 正易의 問題點〉

김 필 수
(동국대학교)

‘正易’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金恒 正易 大易序에 ‘易者曆也’이라는 命題로서 ‘正易’의 의미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易과 曆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이 둘은 별개의 것이다. 혹시 ‘易’이라는 문자가 變化를 나타내는 어휘이기 때문에 曆과의 관련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단순한 변화의 원리가 ‘易’이라는 주장은 ‘易’을 구체적으로는 연구해 보지는 않고서 막연한 일반론적 안목으로 언급한 입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易’은 ‘周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많은 變化의 諸樣相을 易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즉 周易說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周易은 卦爻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西周初에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정설일 것이다. 伏羲가 卦畫을 그었다는 말은 卦爻辭보다 卦畫이 먼저 형성되었다는 주장의 우회적 표현인 것이다. 卦畫이 먼저냐 卦辭가 먼저냐의 시기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周易은 八卦가 기본적 논리이며 이것은 서로간에 對待되어 成立되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겹쳐져서 六十四卦(384爻)라는 宇宙觀 및 人生論의 ‘카테고리’로서 형성되어 있다. 즉 크게는 八卦가, 구체적으로는 六十四卦가 對待論이라는 周易 특유의 논리에 의하여 時空間의 狀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中國文化에서 만들어진 世界觀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타의 世界觀에서도 周易의 論理를 많이들 인용하기도 하고 또 周易說속에 여타의 잡다한 世

界觀들이 끼어들기(竄入)도 했던 것이다. 周易理論을 이용한 것으로는 天文, 地理(風水堪輿), 律呂, 曆算, 時令이 그것이고 周易說속에 끼어들어간 잡다한 世界觀들은 太極圖說, 八卦方位圖, 六十四卦 方位圖(伏羲方位圖, 文王方位圖), 圓圖, 橫圖, 河圖, 洛圖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周易 주변의 결가지들은 주역본래의 것이 아닌 漢代 또는 魏晉南北朝期에 竄入된 것이라는 사실은 考證學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미 宋代부터 시작되어 清代에 와서 최고조에 달했던 考覈은 贗造된 要素들에 대하여 가차없는 메스질을 했던 것이다.

正易에서 證典으로 삼고있는 經書의 句節들은 불행이도 모두 僞經에서 인용된 것이라는데 문제가 더 커진다. 例를 들어 古文尙書는 晉代 梅賾에 의해서 꾸며진 僞書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周易의 중요한 연구영역같이 보여지는 '圖書象數易'은 본래 周易의 것이 아니고 道家들의 鍊丹術에서 自然의 氣를 뽑아 人體에 흡입시켜 장수하려는 미신적 術數로서 '參同契'라는 偉經에서 集大成되었던 것인데 朱熹가 考亭書院에서 講할 때 門下에 있었던 西山蔡元定에서 영향받아(실제로 晦菴이 西山으로부터 參同契강의를 들었음) 周易經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馬王堆帛書易'에도 圖象易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며 너무나 난잡했던 漢代易에서조차도 오늘날의 圖書象數는 존재하질 않았던 것이다. 漢末 王弼에 의해서 周易이 정리될 때도 河圖, 洛書등의 圖象易은 研究대상에 있지를 않았다. 論語에서 말하는 '河不出圖'하는 구절은 옛날을 숭모하여 현실을 개탄하는 말이며, 또 洛書가 어찌 九數의 숫자배열일 수 있는가? 清代初의 '浙東學派'의 三黃兄弟들(黃宗羲, 宗炎, 宗會)에 의하여 이것들은 '陳搏'의 僞作으로 밝혀졌고 '胡渭'에 의하여 더욱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朱熹가 단지 圖書象數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이 周易속에 포함되고서 迷信에 빠지기 좋아하는 時代性과 迎合하여 이어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派生된 亞流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고 또 이와 같은 朱熹의 잘못됐던 판단은 朱子哲學全般의 評價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易'과 '曆'은 별개의 것이다. 曆에서 단지 그의 理論체계를 術學化하기 위하여 易(僞易)을 이용했을 뿐이며 이 둘은 學問영역자체가 별개의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數理에 어두웠기 때문에 圖型을 만들고 숫자를 곁들여 나열하면 그저 비판없이 빠져들기 일쑤였다. '正易'이란 일종의 曆算法의 하나라 할

수 있겠는데 周易의 구절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헛갈렸던 것이다. 또 正易에서 ‘先後天說’을 언급하는데 先天, 後天은 康節 邵雍의 宇宙觀으로 李之才로부터 받았으며 元, 會, 運, 世의 순환적인 변화설로서 우주가 한 번 開闢하는 一週期의 文化的(道德的) 訂點의 앞뒤를 先後天이라 하는데 ‘正易’에서는 이것을 응용하고 있다. 邵康節의 것도 周易이 아니듯이 正易또한 周易과 관련이 없다. 또 一家의 學이 經典의 반열에 들고 싶으면 倫理說의 확립이 있어야 하는데 正易은 그렇지 못하다. 혹, 周易에서 完成되었는데 덧붙여서 무엇하랴? 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대로 誤謬를 범하는 것이 된다.

朝鮮朝末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曆算法의 하나로서는 그 精密性을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또 韓國學의 個性있는 領域으로서 손색이 없다. 다만 世界觀學을 完成하기에는 時代가 너무 現代에 가깝다는 문제가 남는다.